

농협의 신남방금융... 김광수 회장, 메콩3국 순회경영

(NH농협금융지주)

베트남·미얀마·캄보디아 등 방문
임직원 간담회서 건의사항 청취
파트너십 동반 확장·차별화 사업
글로벌 현지화 전략 마련할 것



NH농협금융지주 김광수 회장(왼쪽 다섯번째)과 캄보디아 중앙은행 쉐아 찬토 총재(왼쪽 여섯번째)가 지난 27일 캄보디아 중앙은행에서 열린 'NH농협금융지주-캄보디아 중앙은행 경영진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베트남·미얀마·캄보디아 등 동남아 거점을 직접 찾아 현장경영에 나섰다.

NH농협금융지주는 김광수 회장이 지난달 21일부터 1주일 일정으로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등을 방문했다고 3일 밝혔다. 동남아시아 사업을 점검하고 농협금융만의 맞춤형 현지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동남아는 정부의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 국내 기업과 더불어 금융회사도 활발히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지역이다. 농협금융도 은행과 증권을 중심으로 동남아 지역에서 속도감 있게 영업기반을 확충해 왔다.

김 회장은 현지 거점을 방문해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임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3개국 중앙은행의 총재·부총재를 각각 면담하면서 농업금융과 농업정책보험

을 소개하는 등 농협금융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현지 사업 확대에 대한 적극적 협조도 요청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쉐아 찬토(Chea Chanto) 중앙은행 총재를 만나 향후 캄보디아에서 농협금융의 사업 확대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 회장은 "농협금융이 글로벌사업 후 발주자로서 현지에 조기 안착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현지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교감, 파트너십을 동반한 유연한 확장성

및 농협금융만의 차별화된 사업 등이 중요하다"며 "각 국가별 금융당국과 현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요건에 적합한 '맞춤식 글로벌 현지화(Customized Glocalization)'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트남에서는 농협은행 하노이지점이 설립 2년 만인 지난해 말 흑자를 달성했으며, 아그리뱅크(Agribank)와 무계좌 송금서비스, 교차 마케팅 등의 협력을 통해 현지 영업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특

히 지난해 말 영업지역 확대를 위해 호치민 사무소를 개설했고, 지점전환을 추진 중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베트남 현지 합작증권사의 지분을 100% 확보한 이후 300억원 증자를 실시했고, 종합증권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IT 등 영업인프라를 재 구축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번 출장에서 아그리뱅크와 베트남 협동조합연맹 및 미얀마 HTO O그룹 등 현지 파트너사를 방문했다.

아그리뱅크 전 응옥 칸 회장 등과의 경영진 면담에서는 지난해부터 논의해 온 은행·비은행부문 협력과제들이 올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아그리뱅크는 대주주인 베트남 중앙은행과 함께 상장(IPO)을 추진 중인데, 이번 면담에서 전 응옥 칸 회장이 전략적 투자자로서 농협금융의 참여를 제안함에 따라 지분투자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농협금융은 미얀마에서는 농협파이낸스 미얀마를 통해 소매대출업을 전개 중이다. 지난 2016년 말 설립 이후 두 차례 증자를 통해 현재 자본금은 미화 2000만 달러다. 양곤주와 이예와디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점포 확장 및 대출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최근에는 현지 농업인 대상의 소매대출상품 개발 등 사업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다. 올해는 은행업 진출을 위해 양곤 사무소 개소를 검토 중이다.

캄보디아에서는 지난해 농업금융전문 증권 소매대출회사 인수를 통해 농협파이낸스 캄보디아를 성공적으로 출범시켜 현지 거점을 확보했다. 본국의 지원 강화와 영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현지 우량 소매대출회사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美, 고용호조에 성장세... 中, 둔화 지속”

은행 ‘이자이익’ 40兆 돌파... 사상 최대치

한은 '최근 해외경제 동향'
잠재성장률 상회 성장세 이어질 것

최근 세계경제 성장세가 다소 완만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경제는 고용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중국의 성장세 둔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최근 해외경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정부 셧다운의 영향으로 1분기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노동시장 호조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1월 비농업부문 취업자수 증가폭은 30만4000명으로 전분기 월평균 수준(23만2000명)보다 확대됐다. 임금상승률도 3%대의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해 12월 126.6이던 소비자신뢰지수는 올해 1월 121.7로 떨어졌다가 지난달 131.4로 회복했다.

한은은 "앞으로도 잠재성장률 수준을 상회하는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다

만 미·중 무역협상 전개 방향 등 리스크 요인은 상존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은 전반적으로 성장세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4%로 전분기 대비 0.1%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6.6%로 전년도에 비해 0.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중국의 수출과 수입은 미·중 무역분쟁 등에 영향으로 각각 4.4%, 7.6% 줄어 들었다.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부정적 경기인식도 확대됐다. 올 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5로 29개월 만에 기준치(50) 이하로 하락했고 제조업 이윤증가율도 2015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전환했다.

다만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등에 힘입어 6%대 초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6.2%로 전망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6.3%로 제시했다. 63개 투자은행(IB)이 내놓은 평균 전망치는 6.2% 수준이었다.

/김희주 기자 hj89@

당기순이익 전년비 12.8% 증가
대손비용 39.5% 감소로 수익 ↑

지난해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섰다.

이자이익이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육박하게 되면서 은행들이 부동산 호황을 틈타 손쉬운 이자장사에만 몰두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중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3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4% 증가했다. 지난 2011년 14조4686억원을 기록한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다.

당기순이익은 시중은행이 8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했고, 대손비용 감소에 특수은행도 전년 대비 54.2% 늘어난 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인터넷은행은 -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폭이 축소됐다.

◆이자이익 ↑ 비이자이익 ↓
실적개선은 이자이익 덕분이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40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2% 늘었다. 사상 최대치로 지난 2011년 39조1000억원을 뛰어넘었다.

〈국내은행의 이자이익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구분	16년	17년	18년					증감
				1Q	2Q	3Q	4Q	
이자이익	34.4	37.3	40.3	9.7	10.0	10.2	10.5	3.0
순이자마진(NIM)	1.55	1.63	1.66	1.65	1.67	1.65	1.66	0.03
예대금리 차이	1.95	2.03	2.06	2.06	2.09	2.07	2.05	0.03
↳ 대출 평균 금리	3.26	3.23	3.42	3.35	3.42	3.45	3.48	0.19
↳ 예수 평균 금리	1.31	1.20	1.36	1.29	1.33	1.38	1.43	0.16

금융원 관계자는 "대출채권 등 운용자산이 증가한 가운데 순이자마진(NIM)이 함께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자수익자산(평균)은 지난 2017년 2020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2142조2000억원으로 120조원 넘게 증가했다. 국내은행의 NIM 역시 1.66%로 전년 1.63% 대비 개선됐다. 2011년 당시에는 이자수익 자산이 1519억3000억원에 불과했지만 NIM이 2.3%였다.

반면 비이자이익은 급감했다. 작년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은 5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4.3% 감소했다.

국제회계기준(IFRS)9 시행으로 유가증권관련 이익이 줄었고, 환율 상승으로 외환·파생관련 이익도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이자이익 의존도는 더 높아졌다. 전체 이익에서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87.8%로 전년 83.6%에서 4.2%포인트 상승했다.

◆대손비용 급감에 수익성 ↑

지난해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은 4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9.5% 감소했다. 금융원 관계자는 "전년 대비 신규 부실이 감소하고 부실채권을 정리한데서 기인한다"며 "금호타이어 매각 등으로 관련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환입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56%,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7.10%로 전년 대비 각각 0.08%포인트, 1.07%포인트 상승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신한은행 기업고객 대상 비대면 환전서비스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최초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기업 비대면 환전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업 명의의 환전 거래가 필요한 경우 통장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해 매번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는 영업점 방문없이 기업인터넷뱅킹에서 외화를 수령할 임직원 정보와 통화 및 금액 입력만으로 환전 거래가 가능해 기업 고객의 거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기업 비대면 환전서비스 이용 시 미국

달러(USD), 유로화(EUR), 엔화(JPY) 등 주요 18개 통화 환전이 가능하며, 환전 거래 건별 최대 20명까지 외화 현찰을 수령할 임직원을 등록할 수 있다.

또 신한은행은 기업인터넷뱅킹 화면에서 환전 거래내역 조회, 임직원 현찰 수취 여부 등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편리한 사용자 환경을 구축했다.

신한은행은 해외 출장 목적의 환전 거래가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 환전 서비스를 시작해 거래 가능한 환전 범위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하나금융그룹 5개 자회사 스투어드십코드 도입

하나금융그룹은 그룹 내 거래손님의 이익향상과 투자대상기업의 중장기적 기업가치 상승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 스투어드십코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그룹의 주요 자회사인 KEB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생명,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하나벤처스 등 5개 회사가 참

여한다.

하나금융은 지난해부터 주요 자회사를 대상으로 내부 운용체계와 투자대상별 특성 등을 점검해 내부규정 및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등 스투어드십 코드 도입을 준비해 왔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번 스투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손님(고객)자산의 수탁자로서 자산관리 업무를 보다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란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발전과 손님(고객) 및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투자대상 회사와의 대화, 의견권 행사, 주주제안 등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자율규범을 말한다.

/김민호 기자 kmh@